

프로그램 학습성과기반 간호학 교육과정 운영 평가 - 일 대학사례를 중심으로 -

황성우¹ · 광근혜²

^{1, 2}두원공과대학교, 조교수

Management Evaluation of Nursing Curriculum based on Program Outcomes
: Focusing on the case of a college

Sung Woo, Hwang¹ · Keun Hey, Kwak²

^{1, 2}*Department of Nursing, Doowon Technic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한국간호연구학회지 『별책』 제4권 제4호 2020년 12월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Vol. 4, No. 4, Dec. 2020

프로그램 학습성과기반 간호학 교육과정 운영 평가 - 일 대학사례를 중심으로 -

황성우¹ · 광근혜²

^{1, 2}두원공과대학교, 조교수

Management Evaluation of Nursing Curriculum based on Program Outcomes : Focusing on the case of a college

Sung Woo, Hwang¹ · Keun Hey, Kwak²

^{1, 2}Department of Nursing, Doowon Technic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Abstract

Purpose : This study was to examine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a curriculum based on program outcomes in nursing students and graduates, their achievements, and the educational experiences of students and professors in an effort to determine what improvements should be made in the curriculum. **Methods :** The quantitative data that were collected from 169 nursing seniors and graduates in a university located in a city about the importance of a curriculum based on program outcomes and their achievements were analyzed. And qualitative data were gathered by interviewing 13 people who were nursing seniors, graduates and professors in the same university,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as well. **Results :** The areas that the nursing students and graduates considered important were “the performance of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s” and “therapeutic communication,” and their achievements were low in “the performance of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s” and “the theoretical establishment of knowledge on liberal arts and the major field of study.” **Conclusion :** To improve the achievements of the students the curriculum needs to be improved by gathering opinions from students, professors and industrial experts. In addition, the development of a curriculum that could link and integrate different areas of program outcomes is required.

Key words : Nursing Education, Curriculum, Nursing Program Evaluation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간호사 수요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만성질환 증가,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의 질제고, 의료비용의 적정화, 국민들의 건강의식 향상 등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 이에 간호교육기관은 핵심역량을 갖춘 간호인재 양성을 교육목표로 설정하고 간호교육의 질 관리를 통해 우수한 간호사를 양성하고 있다[2]. 현재 간호교육계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제시한 졸업학년의 7가지 핵심역량과 12가지 프로그램 학습성과 기준과 지침을 기반으로 대학의 비전, 교육목표, 지역의 보건의료 환경특성을 고려하여 간호교육기관별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3]. 또한 2017년부터 시작된 3주기 간호교육인증평가는 지난 2주기를 통해 구축한 학습성과기반 교육과정이 실제적·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졸업학년 학생들의 프로그램 학습성과 성취 여부와 핵심역량 도달여부를 평가하는 동시에 프로그램 학습성과기반 교육체계의 지속적인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4].

프로그램 학습성과기반 교육은 학생이 졸업하는 시점에서 갖추어야 하는 역량을 의미하며[5], 간호역량은 단순한 지식과 기술수행이 아니라 임상간호업무에서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가치관 등을 모두 포함하고,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한 환자중심 간호를 수행하는 능력을 의미한다[6]. 프로그램 학습성과기반 교육은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의 기준을 제시하며, 학생들은 효과적인 학습계획 수립을 통해 자신의 성취수준을 확인하는 지표가 된다[7]. 따라서 프로그램 학습성과기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자와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교육 요구도를 파악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8]. 또한 교수자와 교육수요자가 프로그램 학습성과에 대해 명확한 정의와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교수자는 교수·학습과정에서 학습

성과에 대한 평가방법, 평가도구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해야 하며, 교육수요자는 교육을 통해 간호핵심역량을 갖추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과정이 요구된다[8,9]. 프로그램 학습성과기반 교육과정에서 평가는 목표로 삼은 역량이 얼마만큼 길렀는가를 판단하는 지표가 된다[9]. 평가체계는 표준화된 것이 아니라 각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프로그램 학습성과 달성도가 평가되어야 한다. 학습성과를 평가하는 방법 중 직접평가방법으로는 학업성취도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졸업시험, 보고서, 에세이, 술기시험, 학생포트폴리오 등을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다. 또한 간접평가로는 설문지를 이용한 교육과정의 만족도 확인과 학생 스스로 각 영역별 학습성과 달성도를 자가평가 하는 방식도 적용되고 있다[10]. 그러나 이론적 고찰을 통해 설정된 평가도구가 간호교육의 넓은 학습활동을 모두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 또한 핵심역량인 의사소통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문제해결능력, 리더십 등이 교과·비교과 학습활동을 통해 향상되었는지, 더 나아가 실제 상황에서 과업 수행 능력과 어떠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11].

현재 프로그램 학습성과기반 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보면 평가체계 개발 연구[9,12-14]와 학습성과 측정도구개발 연구[15], 프로그램 학습성과에 대한 성취도와 중요도 인식에 관한 연구[8], 학습성과에 대한 교육요구도 연구[3,16]가 시행되었다. 또한 교과목 학습성과 개발연구[17],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선 연구[18-20], 의사소통과 자기 주도적 학습성과를 측정하는 연구[21], 핵심역량 분석연구[22,23]가 있었다. 그러나 실제 프로그램 학습성과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자와 교육수요자를 대상으로 각 간호교육기관에서 설정한 프로그램 학습성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간호핵심역량을 키우는데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지에 대해 평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간호교육 인증평가 3주기 막바지 단계인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인증평가 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간호대

학생이 학습성과를 어느 정도 성취하였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학습성과를 중요하게 인식하는지를 파악하고, 졸업생들은 교육과정에서 성취한 역량이 실제 간호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미래 간호현장에는 어떤 간호역량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간호학과 4학년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학습성과에 대한 중요도와 성취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간호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자와 교육수요자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간호학과의 프로그램 학습성과기반 교육과정운영에서 성취도 평가를 위해 설정한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도구 등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심층적인 의견을 도출하여 미래 사회에 필요한 간호인재를 양성에 필요한 교육과정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는 간호학과의 프로그램 학습성과기반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관리체계 확립을 더욱 견고히 하고 체계적인 간호교육과정을 구성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프로그램 학습성과기반 교육과정을 적용한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자신이 인식한 프로그램 학습성과의 중요도와 성취도를 파악하고 이들의 교육 경험을 탐색하며, 교육수요자와 교수자들로부터 프로그램 학습성과기반 교육과정의 개선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학습성과기반 교육과정의 중요도 인식에 따른 성취도를 파악한다.
- 2) 재학생과 졸업생의 프로그램 학습성과기반 교육과정에서 성취도와 중요도 인식의 차이를 확인한다.
- 3) 재학생, 졸업생, 간호학과 교수를 대상으로 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전문직 간호사에게 중요한 프로그램 학습성과기반 교육과정 영역

을 탐색한다.

- 4)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프로그램 학습성과기반 교육과정의 개선 필요성을 파악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프로그램 학습성과기반 교육과정을 통한 성취도와 중요도를 파악하여 양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하고,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프로그램 학습성과기반 교육 경험의 탐색과 교육과정 개선 필요성을 모색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혼합한 연구설계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양적 연구대상자는 경기도 A시 소재 일개 대학 간호학과의 4학년 재학생과 2019년과 2020년 2월 졸업생 중에서 편의추출 하였다. 질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동일 대학 4학년 재학생, 졸업생, 교수자의 3개 그룹을 구성하고, 각 그룹당 3~5명, 총 13명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각 그룹당 1회씩 총 3회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양적 연구를 위한 표본 수는 G*Power 3.1.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α)=0.05, 효과 크기 0.5(medium), 검정력($1-\beta$)=0.85로 선정했을 때 산출된 최소 대상자 수 146명이 요구되었고, 탈락률을 고려하여 20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응답이 불충분한 31부를 제외하고 총 169부를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개발자에게 전화로 동의를 구한 후 도구 사용에 대한 허가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

1) 간호학 프로그램 학습성과 성취도

kim[15]이 개발한 간호학 프로그램 학습성과 간접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재학생과 졸업생의 성취도를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제시한 12가지 프로그램 학습성과에 대한 각 하위범주 총 79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매우 못함’ 1점에서 ‘매우 잘함’ 5점의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자가 보고 방식이었다. 점수 분포는 최저 79점에서 최고 395점까지의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학 프로그램 학습성과 성취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kim[15]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가 .914였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가 .982였다.

2) 간호학 프로그램 학습성과 중요도

경기도 A시 소재 일개 대학 간호학과 교육과정위원회와 성과평가위원회 소속 4명의 교수가 개발하고 해당 대학 간호학과 교수 12명의 내용 타당도 검토를 받은 후 일부 문항의 수정·보완 의견을 반영해 확정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간호학과 프로그램 학습성과에 대한 학생의 중요도 인식 정도를 파악하는 9개 문항으로 중요도가 ‘매우 낮음’ 1점에서 ‘매우 높음’ 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는 최저 9점에서 최고 45점까지의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학 프로그램 학습성과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가 .851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가 .933이었다.

4. 자료 수집 방법

1) 양적연구

경기도 A시 소재 일개 대학의 간호학과 4학년 재학생과 해당 대학 2019년과 2020년 2월 졸업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학습성과기반 교육과정의 중요도 인식에 따른 성취도에 관해 2020년 6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Social Network Service(SNS)를 이용해 온라인 설문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2) 질적연구

연구를 위해 참여자가 소속한 대학 간호학과장의 승인을 받고 연락처가 명시된 연구참여 안내문을 공지한 후, 전화나 문자 등으로 참여 의사를 표시한 4학년 재학생 5명, 졸업생 3명, 간호학과 교수 5명을 3개 그룹으로 구성하여 더 이상 새로운 의견이 도출되지 않는 포화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각 그룹당 1회씩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시행했다. 연구 참여자에게 인터뷰 전 미리 질문지를 보내 내용을 확인하도록 했고 2020년 7월 23일부터 9월 2일까지 자료를 수집했다. 참가자들이 희망하는 장소에서 인터뷰가 수행되었으며 인터뷰는 연구자 중 한 명이 진행하였고 다른 연구자는 면담 중 연구 참여자의 반응과 태도 등을 메모하였다. 인터뷰 횟수는 각 그룹당 1회였으며, 면담 시간은 2시간 내외가 소요되었다. 질문방식은 도입 질문 5분, 전환 질문 5분, 주 질문 100분, 마무리 질문 10분으로 구성하여 개방적인 질문으로 시작해 연구 주제와 관련된 심층적인 내용으로 질문하였다. 참여자의 동의를 받아 휴대용 기기로 면담내용은 녹음하였고 녹음된 내용은 다음 날 바로 연구자가 직접 필사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에게 필사한 내용을 보내 틀린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도록 하였다. 면담의 주 질문은 다음과 같다.

- (1) 임상 현장에서 전문직 간호사로 일할 때 중요한 프로그램 학습성과기반 교육과정 영역은 무엇입니까?
- (2) 신규 간호사에게 필요한 핵심역량을 갖추기 위해 프로그램 학습성과기반 교육과정을 개선할 것은 무엇입니까?

5. 자료 분석 방법

1) 양적연구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3.0 WIN program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했으며, 일반적 특성, 프로그램 학습성과기반 중요도와 성취도는 기술적 통계 방법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했다. 재학생과 졸업생의 프로그램 학습성과기반 교육과정의 중요도 인식에 따른 성취도 차이는 t-test로 분석하였다.

2) 질적연구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필사한 내용과 면담 중 메모한 내용을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자는 Elo와 Kyngäs[24]가 내용 분석방법으로 제안한 귀납적 내용 분석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 방법의 분석단계를 적용하였다. 먼저, 연구자들이 자료를 몰입해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주요 진술문을 파악하고 의미 있는 구 또는 문장을 추출했다. 두 번째 단계로 다시 파악된 주요 진술문을 읽으면서 그 문장의 적절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개념과 문구를 기록하는 오픈 코딩을 하고 표제를 코딩 시트에 작성했다. 세 번째 단계로 오픈 코딩을 그룹으로 분류하고 비교하여 유형별로 묶고 압축하여 범주화 작업을 하였고 네 번째 단계로 도출된 범주를 비교하고 연결해 정리하여 적합한 명칭을 부여하였고 하위범주로 추상화하였다.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충분히 설명했다. 포커스그룹 인터뷰 참여자에게도 연구 목적과 방법, 인터뷰 시 내용이 녹음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연구 대상자가 원하는 인터뷰 날짜와 시간, 장소를 정했으며, 녹음 전 연구 참여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았다. 인터뷰 시 녹음된 내용에 대해서는 익명성을 보장하고 필사된 내용을 본인이 확인할 기회를 제공했다. 연구 종료 후 모든 자료의 폐기, 연구 목적 외에는 자료를 누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연구 결과가 학회지에 출판될 수 있음을 알렸다. 또한 모든 연구대상자에게 자료 수집 도중 언제라도 불이익 없이 연구 참여를 철회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었다.

Ⅲ. 연구 결과

6. 윤리적 고려

연구 참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자는 설문 전 본 연구의 목적, 절차나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며 수집된 자료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연구

1. 양적연구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25세 미만이 68%(115명)로 가장 많았으며, 성별은 여성이 86%(145명)이었고, 간호학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 = 169)

Variables		n	%	Mean±SD
Age(years)	20~25	115	68.0	25±7.03
	26~30	40	24.0	
	31 <	14	8.0	
Sex	Female	145	86.0	
	Male	24	14.0	
Status	Students(4th grade)	111	65.7	
	Graduate	58	34.3	
Academic achievement	3.5 under	78	46.0	
	3.5 more	91	54.0	
Employment	Students	111	65.7	
	Clinical institution	47	81.0	
	Waiting for employment	7	12.1	
	Unemployed	4	6.9	
Employment period	12 month under	29	62.0	3.24±5.32
	12 month more	18	38.0	

과 4학년 재학생이 65.7%(111명), 졸업생이 34.3%(58명)이었다. 졸업학년의 성적평점은 3.5점 이상 54%(91명), 3.5점 미만 46%(78명)이었다. 졸업생 대상으로 현재 취업상황을 조사한 결과 병원근무 81%(47명), 발령 대기 12.1%(7명), 미취업 6.9%(4명)이었다. 졸업생의 병원근무 경력은 12개월 미만 62%(29명), 12개월 이상 38%(18명)이다(Table 1).

2) 재학생과 졸업생의 프로그램 학습성과기반 교육과정의 중요도 인식에 따른 성취도

간호학과 4학년 재학생들이 프로그램 학습성과 영역에서 중요도 인식이 가장 높은 것은 ‘치료적 의사소통’으로 5점 만점에 4.21점이었고, 다음은 ‘핵심기본간호술 수행’, ‘업무조정 및 협력’, ‘비판적 사고’로 4.18점이었다. 중요도가 가장 낮은 영역은 ‘간호리더십’으로 5점 만점에 3.82점이었고, 다음은 ‘간호연구’로 3.90점이었다(Table 2).

간호학과 4학년 재학생들이 프로그램 학습성과 영

역 중 성취도가 가장 높은 것은 ‘간호리더십’으로 5점 만점에 4.14점이었고, 다음은 ‘간호실무의 법적, 윤리적 기준 이해’로 3.81점이었다. 가장 낮은 성취도를 보인 영역은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으로 5점 만점에 3.35점이었고, ‘교양지식과 전공지식의 이론적 확립’이 3.38점으로 낮았다(Table 2). 4학년 재학생들은 치료적 의사소통($t=-10.66, p<.001$), 핵심기본간호술 수행($t=-13.21, p<.001$), 비판적 사고($t=-8.69, p<.001$), 업무조정 및 협력($t=-8.38, p<.001$), 간호실무의 법적, 윤리적 기준 이해($t=-6.25, p<.001$), 교양지식과 전공지식의 이론적 확립 ($t=-11.22, p<.001$), 국내·외 보건 의료정책 변화 인지($t=-2.99, p=.003$), 간호연구수행($t=-2.48, p=.015$) 영역 순으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성취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2). 그러나 간호리더십은 중요도 인식에 따른 성취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t=0.89, p=.373$)(Table 2).

졸업생들이 프로그램 학습성과 영역에서 중요도 인

Table 2. Achievement according to Recognition of Importance of Students and Graduates

(N = 169)

Program outcomes	Categories	Students		Graduates	
		Mean±SD	t(p)	Mean±SD	t(p)
PO1. Practical and integral application of nursing skills based on liberal and major knowledge	Importance	4.11±0.69	-11.22	3.86±0.81	-4.66
	Achievement	3.38±0.20	(<.001)	3.37±0.00	(<.001)
PO2. Selection and execution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according to the nursing situations	Importance	4.18±0.68	-13.21	4.28±0.74	-7.98
	Achievement	3.35±0.50	(<.001)	3.39±0.48	(<.001)
PO3. Therapeutic communication techniques are applied to promote the health of the subject.	Importance	4.21±0.65	-10.66	4.12±0.75	-6.01
	Achievement	3.57±0.48	(<.001)	3.57±0.41	(<.001)
PO4. Describe the role of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among specialized fields for solving health problems	Importance	4.18±0.62	-8.38	3.98±0.74	-3.46
	Achievement	3.71±0.47	(<.001)	3.68±0.39	(.001)
PO5. Nursing process application and clinical reasoning based on critical thinking	Importance	4.18±0.64	-8.69	3.98±0.81	-3.02
	Achievement	3.72±0.47	(<.001)	3.69±0.37	(.004)
PO6. Understand nursing professional standards and confirm legal and ethical standards in nursing practice.	Importance	4.17±0.66	-6.25	3.98±0.78	-2.47
	Achievement	3.81±0.46	(<.001)	3.77±0.38	(.017)
PO7. Compare and analyze the principles of nursing leadership and demonstrate the spirit of service	Importance	3.82±0.79	0.89	3.48±0.88	2.19
	Achievement	4.14±3.81	(.373)	3.70±0.41	(.033)
PO8. Planning and performing nursing research	Importance	3.90±0.70	-2.48	3.71±0.82	-0.24
	Achievement	3.76±0.47	(.015)	3.69±0.41	(.813)
PO9. Recognition of changes in domestic and foreign health care policies	Importance	3.91±0.75	-2.99	3.81±0.81	-1.99
	Achievement	3.71±0.49	(.003)	3.63±0.41	(.051)

식이 가장 높은 것은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으로 5점 만점에 4.28점이었고, 다음은 ‘치료적 의사소통’으로 4.12점이었다. 중요도가 가장 낮은 영역은 ‘간호리더십’으로 5점 만점에 3.48점이었고, 다음은 ‘간호연구’로 3.71점이었다(Table 2). 졸업생들이 프로그램 학습 성과 영역에서 성취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항목은 ‘간호실무의 법적, 윤리적 기준 이해’로 5점 만점에 3.77점이었고, 다음은 ‘간호리더십’으로 3.70점이었다. 가장 낮은 성취도를 보인 영역은 ‘교양지식과 전공지식의 이론적 확립’이 3.37점이었고, 다음은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으로 3.39점이었다(Table 2). 졸업생들은 핵심기본간호술 수행($t=-7.98, p<.001$), 치료적 의사소통($t=-6.01, p<.001$), 비판적 사고($t=-3.02, p=.004$), 간호실무의 법적, 윤리적 기준 이해($t=-2.47, p=.017$), 업무조정 및 협력($t=-3.46, p=.001$), 교양지식과 전공지식의 이론적 확립($t=-4.66, p<.001$) 순으로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였으나 성취도는 낮았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2).

그러나 간호리더십은 중요도 인식에 비해 성취도가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19, p=.033$). 간호연구수행($t=-0.24, p=.813$)과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변화 인지 영역은 중요도 인식에 따른 성취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99, p=.051$)(Table 2).

3) 재학생과 졸업생의 프로그램 학습성과기반 교육과정의 중요도 인식과 성취도 차이

간호학과 4학년 재학생과 졸업생의 프로그램 학습 성과기반 교육과정의 중요도 인식 정도와 성취도 차이를 비교한 결과 성취도에서는 재학생과 졸업생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중요도에서는 ‘교양지식과 전공지식의 이론적 확립’ 영역에서 재학생의 중요도 인식 정도가 5점 만점에 4.11점으로 졸업생보다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07, p=.040$)(Table 3). 또한 ‘간호리더십’에서 재학생의 중요도 인식 정도가 3.82점으로 졸업생보다 높았으며,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t=2.53, p=.012$)(Table 3).

Table 3. Difference between Achievement and Importance of Students and Graduates

(N = 169)

Program outcomes	Categories	Achievement		Importance	
		Mean±SD	t (p)	Mean±SD	t (p)
PO1. Practical and integral application of nursing skills based on liberal and major knowledge	Students	3.38±0.20	0.43	4.11±0.69	2.07
	Graduates	3.37±0.00	(.670)	3.86±0.81	(.040)
PO2. Selection and execution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according to the nursing situations	Students	3.35±0.50	-0.52	4.18±0.68	-0.84
	Graduates	3.39±0.48	(.607)	4.28±0.74	(.401)
PO3. Therapeutic communication techniques are applied to promote the health of the subject.	Students	3.57±0.48	0.04	4.21±0.65	0.78
	Graduates	3.57±0.41	(.972)	4.12±0.75	(.437)
PO4. Describe the role of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among specialized fields for solving health problems	Students	3.71±0.47	0.45	4.18±0.62	1.84
	Graduates	3.68±0.39	(.657)	3.98±0.74	(.068)
PO5. Nursing process application and clinical reasoning based on critical thinking	Students	3.72±0.47	0.35	4.18±0.64	1.75
	Graduates	3.69±0.37	(.724)	3.98±0.81	(.083)
PO6. Understand nursing professional standards and confirm legal and ethical standards in nursing practice	Students	3.81±0.46	0.50	4.17±0.66	1.65
	Graduates	3.77±0.38	(.616)	3.98±0.78	(.100)
PO7. Compare and analyze the principles of nursing leadership and demonstrate the spirit of service	Students	4.14±3.81	0.87	3.82±0.79	2.53
	Graduates	3.70±0.41	(.388)	3.48±0.88	(.012)
PO8. Planning and performing nursing research	Students	3.76±0.47	0.96	3.90±0.70	1.61
	Graduates	3.69±0.41	(.336)	3.71±0.82	(.108)
PO9. Recognition of changes in domestic and foreign health care policies	Students	3.71±0.49	1.17	3.91±0.75	0.80
	Graduates	3.63±0.41	(.245)	3.81±0.81	(.424)

2. 질적연구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질적연구 참여자는 간호학과 4학년 재학생 5명, 졸업생 3명, 간호학과 교수 5명으로 총 13명이었다. 각 그룹의 평균연령은 재학생 25세, 졸업생은 26세, 간호학과 교수는 51세였으며 졸업생의 평균 근무경력 은 7개월이었고 근무부서는 일반 입원 병동이었으며 간호학과 교수는 평균 10년 7개월의 교육경력이 있었다(Table 4).

2) 전문직 간호사에게 중요한 프로그램 학습성과기반 교육과정 영역

전문직 간호사에게 중요한 프로그램 학습성과기반 교육과정 영역에 대해 4학년 재학생, 졸업생, 간호학과 교수를 면담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표현한 상위 4개 프로그램 학습성과기반 교육과정 영역에 대해 범주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임상적 추론을 실행하기 위한 전문지식과 간호술의 통합 역량(P01 & P02)

연구 참여자들은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이론적 지식을 학습하여 임상적 추론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하며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간호 상황에 적절하고 능숙한 간호술을 수행할 수 있는 통합적 역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전공지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있어야 환자를 간호할 때 좀 더 전문적으로 간호할 수 있고 지식을 기반으로 했을 때 적절한 핵심 간호술을 적용할 수 있게 되며(S1)

가장 기본적인 이론을 알아야 환자를 살릴 수 있고 환자가 왜 해야 하냐고 물어보았을 때 간호사가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S4)

일단 자신이 알고 간호 수행하는 것과 모르고 간호 수행하는 것은 분명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근거를 가지고 지식과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간호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S5).

병원에 취업해서 매번 모르는 것을 프리셉터 선생님이나 경력 간호사 선생님들께 이론을 알려달라고 할 수 없으니가 학교에서 탄탄한 이론적 지식을 쌓은 것이 중요하고 핵심 기본간호술은 정말 간호사가 능숙하게 잘 할 수 있어야 하고(G1)

지식적인 부분이 없으면 주치의와 소통하기가 힘들고 임상현장에서 일하다보니 지식적인 부분에서 더 많은

Table 4.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Focus Group Interviewees

(N = 13)

Groups	No	Participant	Age	Status	Career period
S1~5	1	Kang ○○	23	Student	None
	2	Kim ○○	23	Student	None
	3	Jang ○○	24	Student	None
	4	Jeon ○○	29	Student	None
	5	Jeong ○○	26	Student	None
G1~3	1	Park ○○	24	Graduate	4 month
	2	Park ○○	27	Graduate	1 month
	3	Park ○○	28	Graduate	1 years 5 month
P1~5	1	Bae ○○	59	Professor	24 years 1 month
	2	Choi ○○	41	Professor	7 years 1 month
	3	Lee ○○	61	Professor	7 years 1 month
	4	Park ○○	44	Professor	7 years 1 month
	5	Yoon ○○	50	Professor	7 years 7 month

공부가 필요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G3).

간호학문은 완전 실용 학문으로 자신이 아는 지식을 실제 임상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P5)

② 환자 간, 다학제 간, 간호사 간 의사소통 능력 함양(PO3)

연구 참여자들은 간호 대상자뿐 아니라 간호사 동료, 함께 근무하는 타 분야 전문직들과의 의사소통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의사소통 능력이 임상 현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핵심역량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실제로 병원에 가보면 이론적인 부분은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똑똑하지만 의사소통을 잘 하여 환자와의 라포 형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직접 만나는 사람은 환자이기 때문에 아픈 분들과 어떻게 소통을 해야 라포를 잘 형성할 수도 있고 라포를 형성하면 더 협조적이기 때문에 회복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S2).

의사에게 노티할 때도 핵심적인 내용을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고 다른 의료인들과도 소통 능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G1)

환자가 어느 부분을 정확히 불편해 하는지를 환자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환자랑 의사소통이 되어야지 그것을 저한테 제대로 전달해 줌으로써 환자에게 필요한 간호를 생각하고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G2)

의사소통을 저희는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분들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환자 상태에 대한 부분이나 앞으로의 치료 계획 부분을 잘 설명해야 하고 제일 많이 환자 곁에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G3).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 간에 의사소통은 결국은 의학용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환자와의 의사소통은 치료적 의사소통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저희 할머니가 응급실에 통해서 병실로 입원하는 과정 중에 보면 응급실에 있는 간호사들은 자기만 바빠요. 환자들은 숨이 넘어가는데 자기만 바빠서

의사소통술 없이 너무 터프하게 환자들을 대하는 행태들을 보고 이게 참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고요(P1)

③ 법률 및 윤리적으로 안전한 기준 확립(PO6)

간호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이기 때문에 전문직 윤리에 근거한 간호 수행을 해야 한다고 연구 참여자들은 주장하였으며 의료법과 생명윤리 관련 법률도 잘 알고 이에 따라 안전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간호 전문직으로서 표준을 이해하면서 법적, 윤리적인 기준을 좀 더 배워가고 그대로 이를 수행해서 환자에게 안전하고 해가 되지 않는 간호를 할 수 있어야 하며(S3)

간호사로서의 법적, 윤리적인 기준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간호사로서 임상에 나가면 많은 윤리적 문제와 직면하게 될 텐데 과연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내가 윤리적이고 법적인 사고를 하였는지에 대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S5)

간호 수행을 하면서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때 저를 보호해야 하므로 간호표준대로 수행하고 이를 기록으로 정확하게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G2).

간호직은 다른 직종이랑 다르게 법적, 윤리적인 지표가 남달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P2)

간호지식이 풍부하고 똑똑해도 간호사를 하면 안 되는 친구가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졸업 후에 가장 임상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윤리적인 부분, 간호 윤리에 대한 부분을 저버리면 아무리 지식적인 부분이 뛰어나도 우리는 간호라는 직업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간호윤리 또는 전문직관과 관련된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P4).

3) 신규 간호사의 핵심역량을 위해 개선해야 할 프로그램 학습성과기반 교육과정

신규 간호사의 핵심역량을 갖추기 위해 개선해야 할 프로그램 학습성과기반 교육과정에 대해 4학년 재학생, 졸업생, 간호학과 교수를 면담하여 범주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든 참여자는 각각의 프로그램 학

습성과기반 교육과정 영역들을 개별적으로 강화할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학습성과기반 교육과정 영역 간 연계성을 증진하고 통합 교육과정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① 현장에 기반한 실무 체험훈련 강화를 통한 임상적 추론 능력 향상(PO2 & PO5)

연구 참여자들이 실제 임상 환경에서 빠르게 적응하며 실무를 자신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기본 간호술을 체득할 수 있도록 현장감 있는 체험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비판적 사고에 근거하여 상황에 맞는 우선순위를 선별해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하였다.

저는 비판적 사고나 핵심기본 간호술 수행능력을 조금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간호과정에 따른 것을 각 교과목이나 실습에서 많이 적용하고 있지만 조금 더 다양한 사례를 적용하여 현장감 있는 실습이 되면 좋겠고 단순히 핵심기본 간호술도 과목마다 정해진 술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술기를 복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실습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S1).

실제 사례를 대입해서 비판적 사고에 기반한 간호과정을 적용하고 이에 맞는 술기 수업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S5).

다양한 상황들이 주어진 사례에서 핵심기본 간호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실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때 좀 더 다양한 사례를 학습하였더라면 임상에 나와 당황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학생 때 BLS 자격증을 땄는데 실제 임상에서 CPR 상황이 되었는데도 CPR 상황이라는 판단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G2).

학생들이 졸업하고 간호사로 일을 할 때는 뭐든지 단편적으로 알아서는 안 되고 복합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여 실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비판적 사고에 입각해서 무얼 사정하고 수행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야 되고, 전문가로서 자신감 있게 수행하려면 술기 능력도 능숙해야 하기 때문에 반복적이고 집중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P4).

② 전문직 윤리관에 기초한 의사소통 능력 함양(PO6 & PO3)

연구 참여자들은 간호 전문직에 합당한 윤리관이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 다른 의료인들과 적절하게 소통하고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정 강화를 제안하였다.

저는 윤리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전문직 간호표준을 이해하고 생명윤리 사례에서 자신의 관점을 확립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윤리관 확립과 의사소통 능력 함양 부분을 연결해서 학생들이 간호 전문직관과 윤리관을 바탕으로 환자나 대상자에게 치료적 의사소통을 적용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P2).

윤리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든 교수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공감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일회성 프로그램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리얼한 윤리적 딜레마 사례들을 적용해서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훈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P4).

③ 다학제 간 교육을 통한 협업 능력 향상과 리더십 개발(PO4 & PO7)

연구 참여자들은 보건의료 관련 학과와 연계한 다학제 간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이를 통해 다른 분야의 업무 특성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존중함으로써 협력과 조정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궁극적으로는 간호 학생들의 리더십 개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저는 교내의 작업치료학과나 다른 보건 계열학과와 같이 교양과목을 듣거나 접촉할 기회를 만들어서 함께 토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더십 부분에서 스스로 어떻게 역량을 키워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관련 분야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자기계발의 자극도 받고 그 안에서 리더십도 키워지지 않을까 싶어요(S2).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학기 초에 팀 과제를 제시하면

“제발 팀 과제 안 하게 해주세요” 라는 의견이 가장 많아요. 팀 과제를 하면서 조정과 협력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학생들은 가장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적에 민감한 교과목에서 팀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보다 보건의료 공통 교양과목을 개설하고 함께 수강하도록 하고 그 안에서 팀 과제를 수행하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다른 학과학생과의 협업 능력도 생기고 그 안에서 리더십도 개발되지 않을까요?(P2).

IV. 논 의

본 연구는 프로그램 학습성과기반 교육과정을 적용한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자신이 인식한 프로그램 학습성과의 중요도 인식 정도와 성취도를 파악하고, 교육수요자와 교수자로부터 교육 경험을 탐색하여 전문직 간호사에게 중요한 프로그램 학습성과기반 교육과정 영역을 확인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프로그램 학습성과기반 교육과정에서 4학년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의 중요도가 가장 높은 두 영역은 ‘핵심기본간호술 수행’과 ‘치료적 의사소통’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학과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Bac 등[8]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의 질적연구 결과에서도 전문직 간호사에게 중요한 프로그램 학습성과기반 교육과정 영역으로 ‘교양 및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한 전문지식과 간호술의 통합역량’과 ‘환자 간, 다학제 간, 간호사 간 의사소통 능력 함양’이 중요하다고 도출되었다. 특히 졸업을 앞둔 4학년 재학생들은 동료 및 타 의료인과 유연하고 원활하게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간호핵심역량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임상실무현장에서 간호대상자들의 건강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기술로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의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였으며, 이는 Nam[3]와 Bac 등[8], Choi[16]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졸업생들은 현재 간호사로 근무하는 임상현장에서 ‘핵심기본간호술’과 ‘치료적 의사소통’을 수행

하면서 대상자의 기본욕구 유지, 충족을 위해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간호업무를 통해 중요도를 높게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4학년 재학생들의 성취도는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이 가장 낮았고, 다음은 ‘교양지식과 전공지식의 이론적 확립’ 순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양과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임상 상황에 맞게 간호술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실습교육이 부족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간호학생 수 증가, 우수한 실습기관 확보의 어려움, 현장실습지도 인력부족, 환자의 권리 강화로 인해 간호학생들은 직접간호를 수행해 볼 기회를 많이 얻지 못하고 관찰 위주의 제한된 실습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이 현재 실습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25]. 이에 간호지식과 간호술기의 통합적용을 통해 간호문제를 해결하는 시뮬레이션 교육, 표준화 환자를 도입한 사례중심 교육, PBL(Problem based learning) 교육 등을 강화하여 재학생들의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졸업생들의 성취도도 ‘교양지식과 전공지식의 이론적 확립’과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어 재학생들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변화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새로운 전문지식의 습득을 위해 졸업 후에도 간호사들에게 지속적인 학습이 요구되며, 병원에서도 신규간호사 교육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신규간호사가 독립할 수 있도록 프리셉터 교육 강화가 요구된다.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이 중요도에서 가장 낮은 두 영역은 ‘간호리더십’과 ‘간호연구’로 나타났으며, 이는 Bac 등[8]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간호리더십’이 간호관리자에게만 필요한 역량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최근에는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업무 역량과 조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식되고 있으며[8], 또한 ‘간호연구’는 변화하는 임상실무 현장에서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실제적 사례를 제공하여 간호의 학문적 발전 기여에 필요한 역량으로 근거 기반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프로그램 학습성과기반 교육과정에서 ‘간호리더십’과 ‘간호연구’의 중요성을 간호학과 재학 중에 인식시키고 역량을 키우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재학생과 졸업생의 프로그램 학습성과기반 교육과정의 중요도 인식과 성취도 차이는 ‘교양지식과 전공 지식의 이론적 확립’과 ‘간호리더십’에서 재학생의 중요도 인식이 졸업생보다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졸업을 앞둔 4학년 간호학생들이 현재 프로그램 학습성과기반 교육과정의 달성여부를 직접 평가받고 있으며, 취업과 국가고시 준비로 인한 학업 과정 중에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졸업생의 간호리더십 중요도 인식이 낮은 것은 임상현장에서 3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간호사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가 현실적으로 부족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이 부재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임상경력에 따른 단계별 리더십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무적용이 요구된다.

신규간호사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선의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본 질적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구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학습성과 간 연계 교육과정 개발을 제안하였다. ‘(임상)현장에 기반한 실무 체험훈련을 강화하여 임상 추론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는데 이는 단편적인 ‘핵심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이 아닌 ‘비판적 사고에 기반한 간호수행의 적절성 및 우선순위 판단력’ 등을 기를 수 있도록 보다 심도 있게 교육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간호 사례를 적용한 시뮬레이션 실습과 직접 체험 훈련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선행연구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26]. 특히, 다양한 간호 사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임상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최적의 학습시나리오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간호학계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이 분야의 적극적인 투자가 중요하다.

두 번째 개선안으로 ‘전문직 윤리관에 기초한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임상현장에서의 거의 대부분의 간호사 업무는 의사소통으로 이루어지며 효율적이고 적절한 의사소통이 환자 안전과 간호사의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능력 자체만의 함양이 아니라 전문직 윤리관에 기초하여 임상현장에서 간호 대상자와 치료적 의사소통을 할

때도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임해야 하며, 다른 보건 의료인과 의사소통 시 생명존중의 입장에서 정확한 사실에 입각하여 간호표준을 준수하며 정직하게 의사소통하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간호실무의 법적, 윤리적 기준 이해’를 바탕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시킬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다학제 간 교육을 통한 협업 능력 향상과 리더십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으로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일하는 의료계 특성상 다른 분야의 전문인들과 협업하고 업무를 조정할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간호학문 단독의 이해만으로 개발되기 어렵다[29]. 간호학 교육과정에서 타 분야 전문직과 교류하고 함께 교육할 수 있는 다양한 다학제 교과목을 개발하고 교과과정으로 팀과제를 함께 수행하도록 하여 서로의 분야를 이해할 수 있고 협업과 조정 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팀 학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리더십 능력이 개발되고 간호리더십의 특성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프로그램 학습성과기반 교육과정의 중요도 인식에 따른 성취도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간호학 교육과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또한 교육수요자와 교수자의 교육요구를 반영하여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조직, 평가하는 프로그램 학습성과기반 교육과정의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마련하고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V. 결론 및 제언

간호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프로그램 학습성과기반 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 평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간호핵심역량을 갖춘 간호대학생을 양성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이 프로그램 학습성과기반 교육 과정에 대해 중요도와 성취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

는지 파악하고, 교육수요자와 교수자로부터 프로그램 학습성과기반 교육경험을 탐색하여 간호학 교육과정 개선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 대학 프로그램 학습성과기반 교육과정의 운영과 평가를 중심으로 연구하여 연구결과를 모든 대학의 간호학 교육과정에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참여 대학의 표본 수를 확대하여 재연구해 볼 것을 제언한다.

둘째, 산업체 현장 전문가를 참여시켜 교육과정 평가를 통한 개선점을 도출하고 이를 교육과정 개발에 반영하는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셋째, 본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학습성과기반 교육과정에서 간호핵심역량을 포함하여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개선된 프로그램 학습성과기반 교육과정을 적용한 후, 간호학과 졸업생들의 성취도 달성도와 간호핵심역량 향상여부를 확인하는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

1. Seo YO, Park IS, Hwang SY, Kang SY, Shin SJ. A study on the policy proposal for the training and produce of superb nurses in korea. Korea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Institute. 2016;1-102.
2. Lee TH, Lee HY, Lee KH, Kim HS. Focused on fostering future nursing talents leading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Korean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2019;1-60.
3. Nam SM. Analysi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educational needs about program outcom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8; 19(7):315-324. <https://doi.org/10.5762/KAIS.2018.19.7.315>
4.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certification criteria and handbook, 2017, Available From : <http://www.kabone.or.kr/kabon02/index04.php>(accessed Jan., 28, 2018).
5. Park MJ. A new approach to curriculum development in higher education: competence-based curriculum.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008;26(4):173-197.
6. Park JE. Development of a nursing competency scale according to a clinical ladder system for intensive care nurses [master's thesis]. Seoul: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2001.p 1-117.
7. Kim S. The concept and necessity of learning outcome.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2012;24(2):89-92. <https://doi.org/10.3946/kjme.2012.24.2.89>.
8. Bea SH, Park JS. The recognition of achievement and importance of nursing program outcomes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3;19(1):203-214. <https://doi.org/10.5977/jkasne.2013.19.2.203>.
9. Nam SM. Development of a program outcomes assessment system based on course embedded assessment for nursing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7;23(2): 135-145. <https://doi.org/10.5977/jkasne.2017.23.2.135>.
10. Seo MW, Chi EL, Hwang CI, Ju, EH. Developing and validating the measurement instrument of higher education learning outcomes.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2013;26(2):275-296.
11. Choi JY, Lee JM, Jeong JC, Seong TJ. A study on the quality of korean universities I .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2007;16(36):1-307.
12. Kim BN, Kim SO. A study on assessment system for nursing bachelor degree program outcomes: focused on communication ability improvement.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4;20(2): 154-166. <https://doi.org/10.11111/jkana.2014.20.2.154>.
13. Jang KS, Kim BN, Jeong SH, Kim YM, Kim JS. A study on evaluation system for nursing bachelor degree program outcomes: focus on improvement in nursing leadership ability.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6;22(5):540-552. <https://doi.org/10.>

- 11111/jkana.2016.22.5.540
14. Han YI. Course learning outcomes assessment for nursing management improvement and application of course embedded assessmen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6;16(5):301-327.
15. Kim HK. Development of program outcome self-assessment tool in korean nursing baccalaureate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5;21(2):215-226. <https://doi.org/10.5977/jkasne>. 2015.21.2.215.
16. Choi EJ, Sun JJ, Kim OH. Educational needs of program outcomes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4;16(5): 2819-2839.
17. Hwang YY, Kim SH, Chu MS. Developing course outcome to achieve exit outcome: applying hauenstein's theory.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5;21(2):155-167. <https://doi.org/10.5977/jkasne>.2015.21.2.155.
18. Ko JK, Chung MS, Choe MA, Park YI, Bang KS, Kim JA, Yoo MS, et al. Modeling of nursing competencies for competency-based curriculum development.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3;19(1);87-96. <https://doi.org/10.5977/jkasne>.2013.19.1.87
19. Kim JA, Ko JK. Modeling core competencies in the competency-based nursing curriculum.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5; 16(11): 7635-7647. <https://doi.org/10.5762/KAIS>.2015. 16.11.7635
20. Park JM, Kim CS, Kim JH, An JY Pyo EY. Strategy for improving core nursing competency-based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5;21(3):426-439. <https://doi.org/10.5977/jkasne>.2015.21.3.426.
21. Park JH. Effectiveness of cooperative learning on nursing students' performance and experi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0;16(2):202-212.
22. Park JW, Yoo MS, Seo EJ, Park HR. The longitudinal analysis of nursing student's core competency-focusing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cooperative skill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5; 17(4):2269-2282.
23. Park YI, Kim JA, Ko. JK, Chung MS, Bang KS, Choe MA, Yoo MS, et al. An identification study on core nursing competency.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3;19(4): 663-674. <https://doi.org/10.5977/jkasne>.2013.19.4.663.
24. Elo S, Kyngäs H. The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proces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008;62(1): 107-115.
25. Lee SH. Effect of practical delivery-nursing simulation education on team-based learning on the nursing knowledge, self-efficacy, and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18;24(2):150-162. <https://doi.org/10.4069/kjwhn>.2018.24.2.150
26. Kim JY, Lee ES, Lee YH. Effects of integrated simulation education with concept maps on problem solving abilit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20;20(17):227-245.
27. Kim CS. Communication Experience of new nurses in some general hospitals. *Health Service Management Review*. 2020;14(1):1-12. <http://dx.doi.org/10.18014/hsmr>.2020.14.1.01.
28. Kim CS, Hong JJ. Nursing students' learning experience in communications course. *Health Service Management Review*. 2014;8(4):19-29. DOI :10.18014/hsmr.2014.8.4.19.
29. Kim KH, Hwang EH, Shin SJ.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 of interprofessional education in nursing education. *Korean Medical Education Review*. 2017;19(1):18-24. <https://doi.org/10.17496/kmer>.2017. 19.1.18.